World Economy Today

KIEP

오늘의 세계경제

1990-20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2020년 3월 13일 Vol. 20 No. 10

ISSN 1976-051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의 국제적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규엽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장 (kylee@kiep.go.kr, Tel: 044-414-1233)
조문희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장 (mhcho@kiep.go.kr, Tel: 044-414-1200)
오수현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부연구위원 (shoh@kiep.go.kr, Tel: 044-414-1186)
구경현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부연구위원 (khkoo@kiep.go.kr, Tel: 044-414-1271)
김현수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부연구위원 (kimhs@kiep.go.kr, Tel: 044-414-1087)
예상준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부연구위원 (sjyea@kiep.go.kr, Tel: 044-414-1157)
이주관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부연구위원 (jklee@kiep.go.kr, Tel: 044-414-1089)
강준구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선임연구원 (jgkang@kiep.go.kr, Tel: 044-414-1058)
김혁황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선임연구원 (hhkim@kiep.go.kr, Tel: 044-414-1135)
박혜리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전문연구원 (hrpark@kiep.go.kr, Tel: 044-414-1029)
금혜윤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전문연구원 (hykeum@kiep.go.kr, Tel: 044-414-1205)
정민철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전문연구원 (mcchung@kiep.go.kr, Tel: 044-414-1052)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044-414-1114 F.044-414-1001 • www.kiep.go.kr

차 례

1. COVID-19 확산과 경제적 충격
2.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거시경제적 영향: 시나리오 분석
 나. 상품 무역
 다. 서비스 무역
 라. 국내 경제
3. 국제기구/기관의 정책 권고

주요 내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가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아시아를 거쳐 EU와 미국으로 확산되는 추세

▶ [거시경제적 영향: 시나리오 분석] COVID-19 확산 정도에 따라 한국의 실질GDP가 0.51~1.02% 감소할 것으로 추정

- 세계(△0.57~△1.13%), 미국(△0.36~△0.72%), 중국(△0.91~△2.03%)

▶ [상품 수출] COVID-19 확산 시, 한국은 주요국의 중간재와 자본재 수요 감소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미국에서 발생한 신종플루 확산 초기('09.4~8월)에 미국의 對세계 수입이 △13.1%, 對한국 수입이 △11.4% (신종플루 비유행 시기와 비교) 감소
- 중간재(자본재 포함)가 수입 감소 효과의 대부분을 설명하는데, 수입 감소는 백신이 개발·보급되기 전까지 지속

▶ [서비스 수출] 여행과 운송 서비스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

- 이 외에도 유학생의 감소·입국 지연, 전문직 서비스의 공급 제한이 서비스 수출에 악영향

▶ [국내 경제] 소비심리 위축에 따라 음식업, 도소매업, 여행레저업, 운수창고업, 숙박업 등 피해 발생

- 반면 전자상거래를 통한 일부 상품과 서비스 거래는 증가

▶ [국제기구/기관 정책 권고] OECD를 포함한 국제기구/기관은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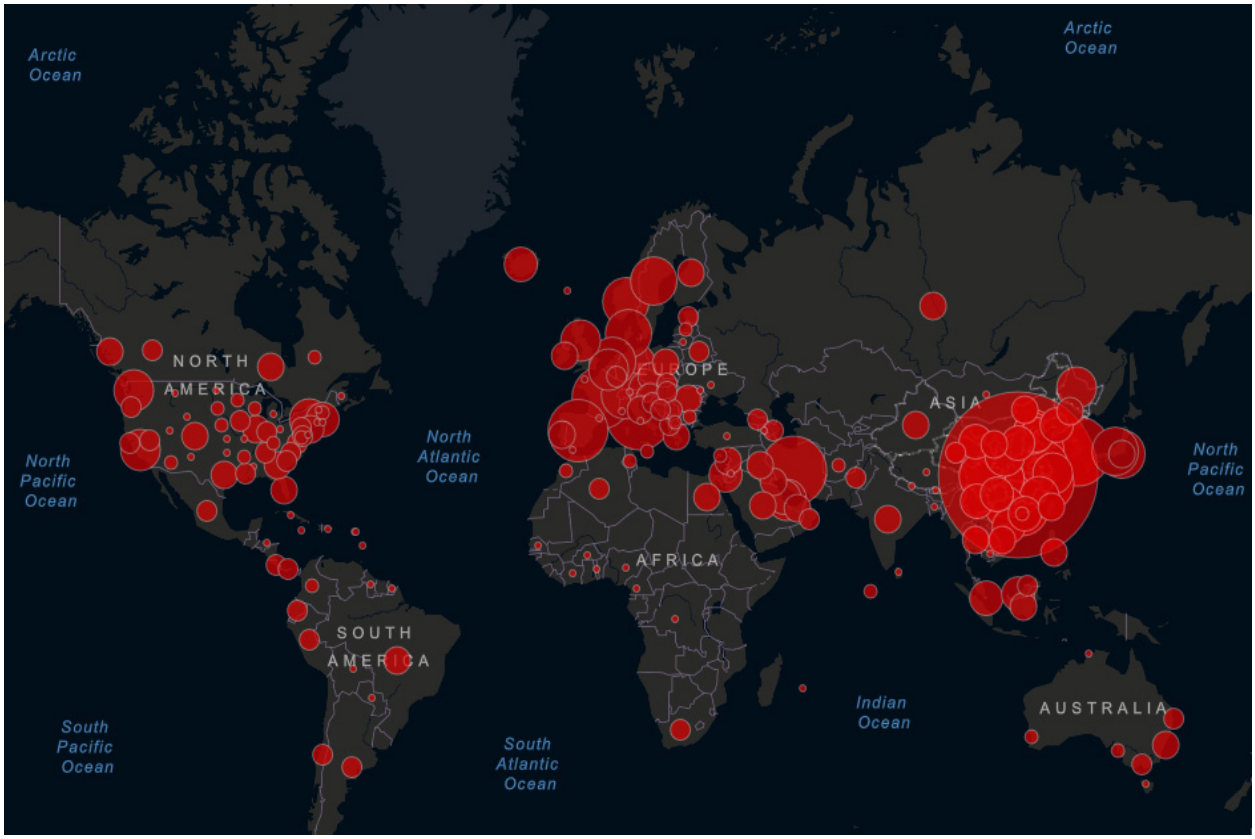
- 해외 수요 위축과 중간재 수입 차질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충격에 취약한 기업과 가계에 대한 금융지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회 안전망 확충(중소기업, 소상공인, 실업자, 일시 휴직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대상별 특화 지원 방안 수립)
- COVID-19에 직접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 수출상품과 피해 예상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COVID-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적인 지원과 협력을 강화

1. COVID-19 확산과 경제적 충격

■ COVID-19가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아시아를 거쳐 EU와 미국으로 확산되는 추세

-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사무총장은 2020년 3월 11일 미디어 브리핑을 통해 COVID-19 확산을 전염병 경보단계 중 최고 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팬데믹(pandemic)으로 공식 선언

그림 1. COVID-19의 국제적 확산



주: 동그라미의 크기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수(누적)를 의미함.
자료: 존스홉킨스 CSSE(The Center for Systems Science and Engineering)에서 인용(검색일: 2020. 3. 13, 10:00).

■ [경제적 충격] COVID-19 확산은 공급 충격과 수요 충격을 유발하고,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를 통해 그 충격을 심화·확대함.

- 감염·사망, 각국 정부의 확산방지 조치에 따른 공급 감소
-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수요 감소
- 생산의 글로벌 가치사슬상 거래비용 증가에 따른 무역 감소

■ 본고에서는 COVID-19의 국제적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

- COVID-19 확산 시나리오에 따른 성장 효과 분석, 미 신종플루 유행 시 한국의 對미 상품 수출 감소 경험 분석, 서비스 수출과 국내 경제 현황 점검

2.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거시경제적 영향: 시나리오 분석

■ [분석모형] COVID-19 확산이 한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연산가능일반균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과 업데이트된 최신 자료를 이용

- 국가는 중국과 한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을 고려하여 일본, 미국, 유럽연합, 아세안, 호주, 캐나다, 여타국 등으로 분류
- GTAP 데이터베이스 Version 10(기준연도 2014년)을 기반으로 각국의 성장률, 인구, 노동증가율 등 거시지표에 현행화하고, 한국의 기발효 FTA의 내용을 반영

■ [시나리오] COVID-19 확산으로 인한 노동 공급의 감소, 소비심리 위축, 무역비용 증가 등을 고려하면서 COVID-19의 확산 정도에 따라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

- [공급 측면] COVID-19의 직간접인 영향을 받는 노동가능인구 비율을 10%(시나리오 1)와 20%(시나리오 2)로 가정하여 노동공급 감소율 추산[1)]
- [수요 측면] 소득 및 물가 변화와는 무관하게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광, 여가 등에 대한 소비심리 위축 반영
  - ○ McKibbin and Fernando(2020)를 참고하여 사스(SARS) 발생 당시 홍콩의 소비지출 감소율을 기준으로 각국의 GDP 대비 관광, 운송, 여가 서비스산업 규모 등을 고려한 국별 가계소비 감소율 설정

1) 치명률은 시나리오 1, 2에서 각각 2.0%, 2.5%, 감염자의 근로 불능 일수는 진단 및 자가격리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21일로 가정함. 먼저 중국의 노동 공급 감소율을 산출한 뒤 이를 각국의 도시 인구집중률, 중국간 항공 여행객 수, 세계보건보안지수 및 1인당 보건지출 등을 고려하여 국별 노동 공급 감소율을 추산함(McKibbin and Fernando, 2020 참고).

표 1. 시나리오별 주요국에 부과한 공급 충격과 수요 충격의 크기

(단위: %)

분류		한국	중국	일본	미국	EU
시나리오1	공급 충격	△0.67	△1.24	△0.59	△0.48	△0.88
	수요 충격	△1.17	△1.31	△1.33	△1.39	△1.25
시나리오2	공급 충격	△1.39	△2.60	△1.24	△0.99	△1.67
	수요 충격	△2.93	△3.28	△3.30	△3.49	△2.83

자료: McKibbin and Fernando(2020)를 토대로 저자 추정.

- [무역 측면] 입국제한, 통관지연, 화물수송 감소 등이 지속될 경우 생산의 글로벌 가치사슬상 거래비용 증가로 무역비용(trade costs)이 상승

○ 시나리오 1, 2하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영향 정도를 고려하여 산업별 관세상당치를 조정[2)]

○ 예를 들어, 한·중 교역의 경우 농축수산업(0.9~1.9%), 광업(1.1~1.5%), 섬유·의복(4.0~7.9%), 화학(1.9~3.9%), 철강·비철금속(3.4~4.5%), 수송기기(3.1~4.7%), 전기·전자(6.0~9.0%), 기계(2.2~3.3%)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무역비용을 설정

■ [분석 결과] COVID-19 확산 정도에 따라 한국의 실질GDP는 0.51~1.02% 감소하며, 세계 실질GDP는 0.57%~1.13% 감소할 것으로 추정

표 2. 시나리오별 거시경제적 영향

(단위: %)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EU	ASEAN	캐나다	호주	세계
시나리오 1	△0.51	△0.91	△0.38	△0.36	△0.54	△0.67	△0.36	△0.36	△0.57
시나리오 2	△1.02	△2.03	△0.74	△0.72	△0.95	△1.28	△0.73	△0.83	△1.13

자료: 저자 작성.

표 3. COVID-19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최근 연구 비교

구분	방법론	시나리오	가정	추정치
UNCTAD	Grubel-Lloyd Index로 중국과 산업연계도를 측정하여 분석	바이러스의 확산방지 조치에 따라 중국의 공급능력 감소	중국의 對세계 중간재 수출 2% 감소	· 전 세계 수출액 약 500억 달러 감소 예상 · 중국과의 GVC 연관도에 따라 EU, 미국, 일본, 한국, 베트남, 싱가포르 순으로 영향 · 한국은 38억 달러 수출 감소
OECD 중간경제 전망	· NiGEM 모형 · 수요 충격과 불확실성 증가 고려	COVID-19 확산 범위를 고려한 2가지 시나리오 1) 중국에 한정 2) 아·태 지역 및 북반구 선진국으로 확산	· COVID-19 확산 지역 내 수요 감소 · 전 세계 주가 및 비식품 가격 각각 10%, 20% 하락 ·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리스크 프리미엄 각각 10bp, 50bp 증가	· 확산 범위를 중국으로 한정한 시나리오에서 2020년 세계 GDP 성장률 0.5%p 감소, 세계 무역 연간 0.9% 감소 · COVID-19가 전 세계로 확산 시 2020년 세계 GDP 성장률 1.5%p 감소, 세계 무역 연간 3.75% 감소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7) 참고.

	방법론	시나리오	가정	추정치
Brookings Institution	G-Cubed 모형 (DSGE+CGE) · 수요 충격과 공급 충격, 중국과의 GVC 연계, 불확실성 증가 고려	COVID-19의 확산 범위 및 감염률(1~30%), 치사율(2~3%)에 따라 7가지 시나리오 설정	· 각국 인구규모별 감염률과 치사율에 따라 노동공급 감소 · 국별, 산업별로 생산 네트워크 차질에 따른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율 가정 · 국별 가계소비 감소 및 정부지출 증가율,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 가정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시나리오 中 · 감염률 10%, 치사율 2%일 경우, 세계 GDP 2조 3,300억 달러 감소 · 감염률이 30%에 달하고 치사율이 3%일 경우, 세계 GDP 9조 1,700억 달러 감소 · 전 세계 확산 시나리오에서 2020년 한국의 GDP는 1.3~5.8% 감소

자료: 저자 작성.

나. 상품 무역

■ COVID-19 국제적 확산에 따른 해외수요 감소로 한국의 상품 수출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미국의 신종플루(A/H1N1) 유행 초기('09.4~'09.8)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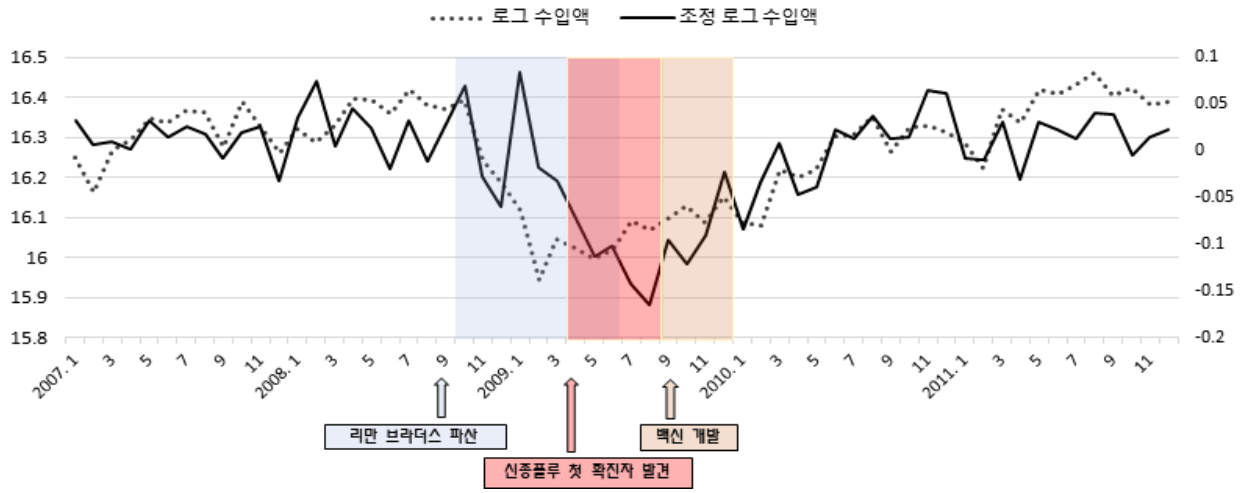
- 2009년 4월에 첫 신종플루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신종플루 유행이 종료된 2010년 8월까지 미국에서 약 6,000만 명이 신종플루에 감염되었고, 약 1만 2,000여 명이 신종플루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3)]
- 지역사회 감염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당시 신종플루 대유행은 현재 COVID-19 확산 사태와 유사성이 높으며, 따라서 COVID-19가 세계로 확산될 경우 발생하게 될 경제적 영향을 예상하는 데 있어 참고할 만한 사례임.

■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의 對세계 월별 수입 자료를 사용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신종플루 확산 초기(첫 확진자가 발생한 '09.4부터 신종플루 백신이 개발되기 전인 '09.8까지)에 미국의 對세계 수입은 13.1% 감소했고, 對한국 수입은 1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비교 시점: 신종플루 비유행 시기('07.1~'09.3; '10.9~'11.12)).[4)]

※ (참고) '19년 주력 수출품목의 수출급감으로 한국의 對세계 수출액은 전년대비 10.3% 감소

3) https://www.cdc.gov/h1n1flu/estimates_2009_h1n1.htm(검색일: 2020. 3. 9).
4) 신종플루 유행 기간을 총 4개 구간(2009년 4~8월, 9~12월, 2010년 1~4월, 5~8월)으로 나누어서 시기별 효과를 추정하였으며, 연도별·월별·산업별(HS코드 2단위)·품목유형별(소비재, 중간재, 자본재 등) 고정효과와 2008년 금융위기(2008년 10월~2009년 6월) 효과를 통제하였음.

그림 2. 미국의 대세계 월평균 수입 변화(2007~11)



주: 1) 로그수입액은 구체적으로 품목 기준(HS코드 4단위) 월평균 로그수입액을 의미함.
2) 조정 로그수입액은 로그수입액에서 연도별·월별·산업별·품목유형별 고정효과와 2008년 금융위기 효과를 제거한 잔차항을 의미함.
자료: USITC(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서 제공하는 미국의 품목별·월별 수입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신종플루가 2010년 8월까지 지속적으로 유행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9월 신종플루 백신이 개발된 이후에 미국의 수입 감소폭이 줄어들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 이후에는 신종플루로 인한 수입 감소효과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임.

- 백신 개발이 미국경제의 불확실성과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계기였음을 시사

■ 신종플루 유행 초기('09.4~'09.8) 미국 수입 감소효과의 대부분은 소비재보다는 중간재(자본재 포함) 수입 수요의 위축으로 설명될 수 있음.

- [소비재] 몇몇 산업에서는 對세계 및 對한국 수입 감소가 두드러지지만, 전 산업 평균 감소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음.
- [중간재와 자본재] 대부분의 산업에서 對세계 및 對한국 수입 감소가 나타나고 전 산업 평균 감소효과도 유의미함.

표 4. COVID-19 확산 주요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액과 비중(2017~19)

구분	미국		EU		중국		일본		합계	
	소비재	중간재	소비재	중간재	소비재	중간재	소비재	중간재	소비재	중간재
연평균 수출액 (1억 달러)	190	525	98	448	54	1,413	35	251	377	2,637
수출비중(%)	29.0	10.4	14.9	8.8	8.2	27.9	5.3	5.0	57.4	5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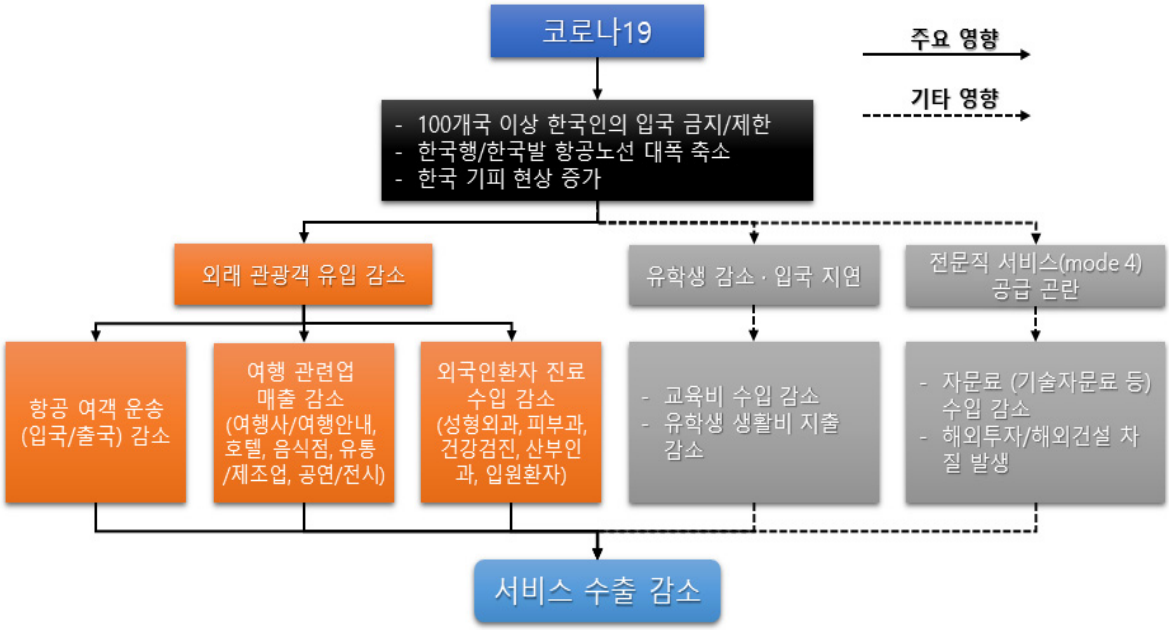
주: 중간재는 자본재를 포함하고 있으며, 수출비중은 한국의 對세계 소비재와 중간재 수출에서 상대국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저자 작성.

■ 신종플루 시기 미국의 경험을 고려했을 때, 적어도 백신의 개발과 보급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COVID-19 확산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가 예상됨.

다. 서비스 무역

■ COVID-19 확산이 한국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외래관광객의 유입 감소로 인한 효과가 가장 크고, 그 외에 유학생 감소·입국 지연과 전문직 서비스의 공급 제한에 따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그림 3. COVID-19가 한국 서비스 수출에 미치는 파급경로



자료: 저자 작성.

■ 외국인 방문객 수 감소와 한국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 제한 국가의 증가로('20. 3. 12 기준 123개 국가 및 지역) 한국발/한국행 항공 노선이 대폭 축소되어, 항공 여객운송 산업의 큰 매출 하락이 예상됨.

- COVID-19가 크게 확산되기 시작한 2월에 항공편을 이용한 한국 방문객 수는 전년동월대비 45.1%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국내 외래관광객의 유입도 대폭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됨.

○ 인천공항 기준 2월 각 국가 및 지역별 입국자 수 감소는 전년동월대비 홍콩(△75.6%), 중국(△74.1%), 일본(△50.5%), 대만(△54.1%), 태국(△41.7%), 베트남(△23.7%), 호주(△14%), 필리핀(△13.4%), 유럽(△6.1%), 미국(△6.9%)으로 나타남.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시나리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0년 1/4분기 국제선 승객 수가 530만~60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 노선 취항 항공사들의 수입 감소가 미화 11억 달러에서 1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5)]

5) https://www.icao.int/sustainability/Pages/Economic-Impacts-of-COVID-19.aspx.

■ 국내 외래관광객의 감소는 여행 관련 서비스 수출 및 의료서비스 수출을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

- 국내 외래관광객의 쇼핑 현황(2018년 기준)을 고려할 때, 쇼핑 감소로 큰 영향을 받게 되는 분야는 화장품 제조업, 음식료품 제조업, 의류·신발 제조업 등이며, 유통업태는 면세점, 로드샵, 시장 등으로 예상됨.

○ '19년 한국 방문 외래관광객 수는 1,750만 명(전년대비 14.0% 증가)이며, 이를 통해 거둔 관광 수입은 215억 1,000만 달러(전년대비 16.5% 증가) 규모로 나타남.

○ 이 밖에도 호텔숙박업, 음식·레스토랑업, 철도·도로 여객운송업, 여행사·관광가이드 등 여행 관련 업계의 서비스 수출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COVID-19의 영향으로 국내에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또한 크게 감소하여 외국인 환자로부터의 진료수입(의료서비스 수출)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18년 기준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190개국, 37만 8,967명에 이르며, 국적별로는 중국(31.2%), 미국(11.9%), 일본(11.2%), 러시아(7.2%), 몽골(3.7%)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이 밖에도 외국인 유학생의 입국 지연에 의한 교육비 수입 및 생활비 지출 감소, 전문직 서비스 공급 제한에 의한 자문료 수입 감소,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및 해외건설의 경영 차질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현재 對한국 출입국 강경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로부터의 유학생 비중이 높아 외국인 유학생들의 입국 지연이나 학업 포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교육비 수입 감소와 이들의 한국 내 생활비 지출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19년 기준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16만 165명('14~19년 동안 연평균 13.5% 증가)이며, 그중 중국(44.4%), 베트남(23.4%), 우즈베키스탄(4.7%), 몽골(4.6%), 일본(2.7%), 미국(1.8%) 학생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 100개 이상 국가가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제한함에 따라 우리나라 전문직 서비스 인력의 해외 서비스 공급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특히 한국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해외투자 및 해외건설 분야에서 경영상 차질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음.

표 5. 한국의 서비스 수출에 대한 영향(對한국 입국제한조치 123개국 시행, '20. 3. 12 기준)

	서비스 무역	주요 내용
주요영향	운송(항공)	- '20.2 인천공항 입국자 수 홍콩(△75.6%), 중국(△54.1%), 일본(△50.5%)(전월동기대비) - '20년 1/4 분기 한국노선 취항 항공사 수입 △11~12억 달러 예상
	여행(관광)	- '19년 관광수입 215.1억 달러(한국방문 외래관광객 수 총 1,750만 명) - '20.2 전국 공항 입국자 수 △45.1%(전년동월대비) - 국내 관련산업: 유통업·쇼핑품목 제조업, 호텔·숙박업, 요식업, 여객운송업, 여행사·가이드 등
	의료 (외국인환자)	- '18년 한국방문 외국인 환자 수 약 38만 명(중국 31.2%, 미국 11.9%, 일본 11.2% 등) * 내과통합(19.4%), 성형외과(14.4%), 피부과(13.7%), 검진센터(8.9%) 등
기타영향	유학생	'19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 약 16만 명(중국 44.4%, 베트남 23.4% 등)
	인력 이동 (Mode 4)	- 입국제한 조치 확대로 전문직 서비스 인력의 해외 서비스 공급에 차질 예상 *한국의 해외 전문직 서비스 공급은 주로 해외투자 자회사나 해외설립 한국기업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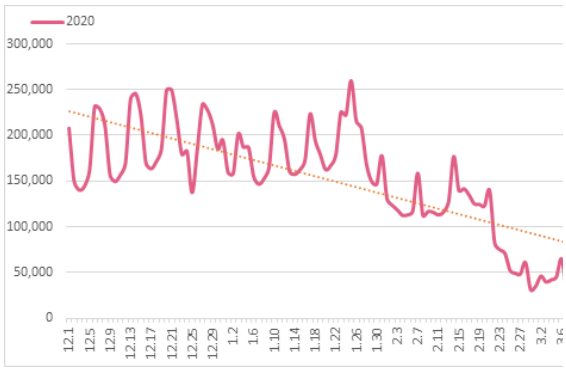
자료: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와 자료 활용.

라. 국내 경제

■ COVID-19 확산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안이 외부활동 자제와 소비심리 위축 현상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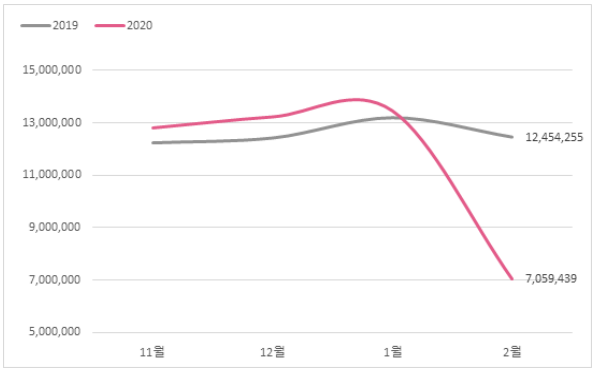
- 국내 소비자가 다중 밀집시설 이용을 자제하는 방식으로 COVID-19 감염 방지(containment) 노력을 기울임에 따라 국내이동 수요가 감소하여, 철도의 경우 '20년 2월 KTX 이용객 수가 전월대비 50% 감소, 국내선 항공여객 수 역시 전년동월대비 43.3% 하락

그림 4. 일별 KTX 여객운송량(명)



자료: 한국철도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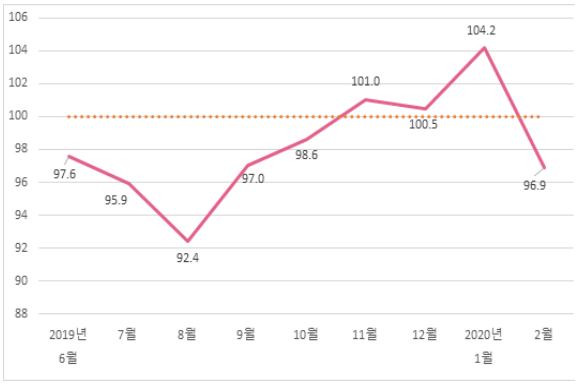
그림 5. 국내선 항공여객운송량(명)



자료: 한국공항공사 항공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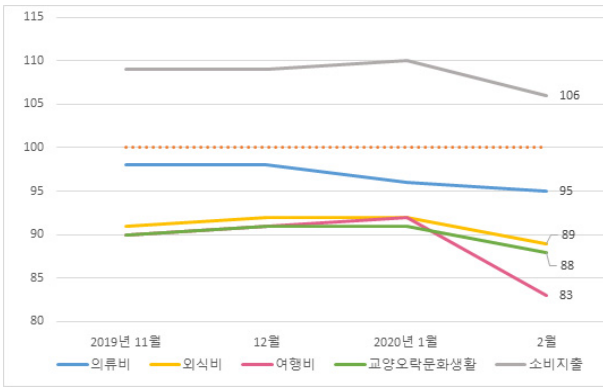
- COVID-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20년 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6.9를 기록, 전월대비 7.3포인트 하락했으며, 경제상황 및 향후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강해짐(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 '20년 2월 소비지출 전망도 전월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교양·오락·문화생활비, 여행비, 외식비, 의류비 등 다중 밀집시설의 이용과 관련된 지출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그림 6. 소비자 심리지수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그림 7. 품목별 지출전망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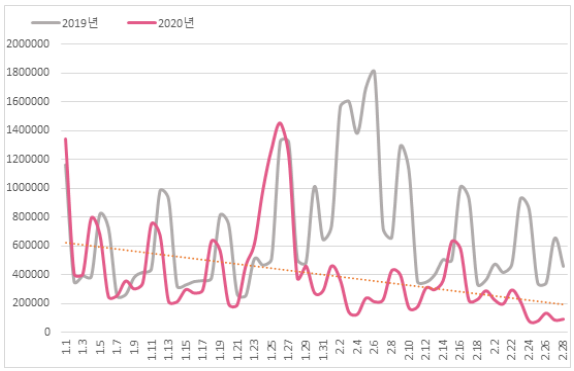
■ [소비자] 외출 횟수가 감소하고 실내 공간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전자상거래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비중이 증가

- 다중 이용시설인 영화관 관람객은 전년동기대비, 전월대비 모두 감소한 반면, 집안에서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 텔레비전(OTT, VOD) 서비스 이용량은 전년, 전월 대비 모두 증가
- 온라인과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오프라인 소비 감소를 일부 상쇄

○ '20.1.20~3.3 동안 G마켓과 옥션의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전년동기대비), 건강용품(595%), 생필품(41%), 식품(21%) 등이 증가한 반면, 여행(-57%), 티켓(-77%) 등 외출물품은 감소(이베이코리아 '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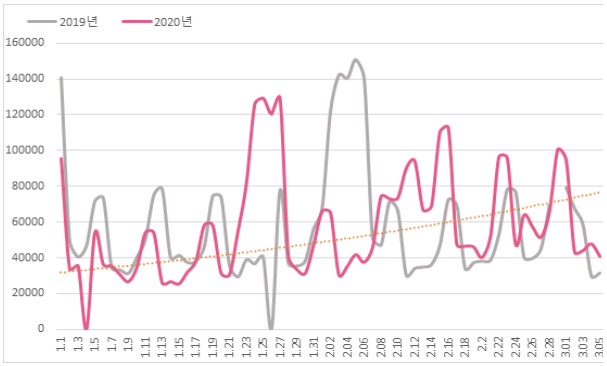
○ 통계청의 온라인쇼핑 동향조사 결과도 '20년 1월 전년동월대비 음식서비스(69.3%), 음식료품(19.1%), 생활용품(22.2%) 등의 온라인 거래 증가를 보여(통계청 '20.3.4 보도자료), '20년 2월에는 해당 거래의 결과치가 더 크게 집계될 것으로 예상

그림 8. 일간 영화관람객 수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그림 9. 온라인 VOD 일간 이용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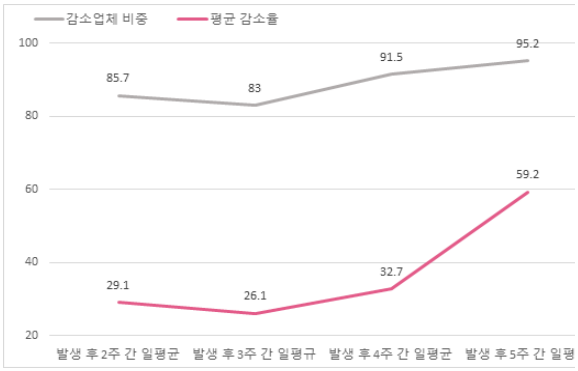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 [소상공인과 기업] 변화하는 소비자의 소비 행위는 산업별로 소상공인과 기업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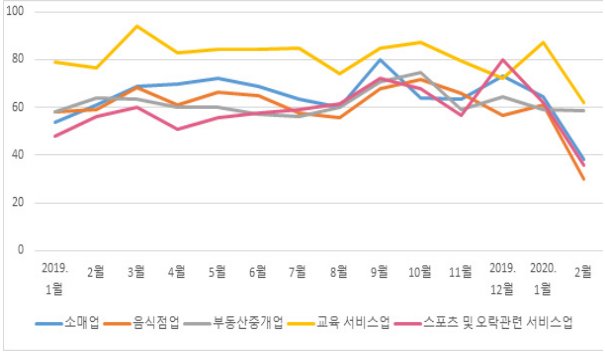
- 소비심리 위축이 실제로 오프라인상 외식 및 소매 감소로 이어짐에 따라 특히 요식업, 숙박업, 도소매업, 여행·레저업계의 중소 상공인과 기업의 경영악화가 2월 주요 지표에서 확인됨.

그림 10. 외식업계 고객 수 감소율 추이(%)



자료: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외식업계 영향 모니터링.

그림 11. 소상공인 업종별 실적



자료: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 시장경기동향조사.

- 소상공인이 체감한 경제 전반의 경기실사지수는 '20년 2월 41.5, 매출실적은 40으로 전월대비 각각 25.8, 25.9포인트 감소

○ 업종별로는 소매업, 요식업,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의 체감 실적 지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고(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 시장경기 동향조사), 정부가 발표한 금융권의 상담과 금융지원 현황에서도 해당 업계의 자금지원 문의가 가장 많았음(금융위원회 '20.3.5 보도자료).

- '20년 3월 소비자의 소비지출전망지수와 기업의 업황전망지수가 전월대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COVID-19에 따른 경제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구매관리자지수(Purchasing Manager's Index)가 하락하였고, 제조업 생산지수(Output Index)는 2015년 6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임(IHS Markit '20.3.2).

■ COVID-19 확산에 따른 국내 수요와 노동공급 감소, 전 세계적 유행에 따른 해외수요 위축과 여행 제약 등이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를 통해 국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표 6. COVID-19의 확산이 국내 기업에 미친 영향

국내 생산 관련 지수	- '20.2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1.1(전월대비) - '20.2 제조업 생산지수(output index) △5.7(전월대비)
경제 전망 관련 지수	- '20.2 소비자심리지수 △7.3(전월대비) - '20.2 소상공인 경기실사지수 △25.8(전월대비) - '20.2 제조업 업황전망지수 △8(전월대비)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IHS Markit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와 자료 활용.

3. 국제기관의 정책 권고

■ OECD를 포함한 국제기구/기관은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함.

- 해외 수요 위축과 중간재 수입 차질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충격에 취약한 기업과 가계에 대한 금융지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회 안전망 확충을 검토(OECD, Deutsche Bank)

○ 피해 취약 기업 및 계층(중소기업, 소상공인, 실업자, 일시 휴직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대상별 특화 지원방안 수립

- COVID-19에 직접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 수출상품과 피해 예상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국내 대책 보완 차원에서 고려할 핵심은 COVID-19 확산이 공급과 수요 충격을 동시에 유발하고, 글로벌 가치사슬구조를 통해 그 충격이 국경간에 전파된다는 점임.

■ 국제기구/기관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COVID-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적인 지원과 협력(global cooperation)을 강화해야 함(World Bank, OECD, IMF 등).

-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 간 유기적 네트워크 강화(ADB)
- 주기적인 동물 매개 감염 및 질병 발생이 예상되는바, 글로벌 보건정책 수립과 저소득 국가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이 필요(Brookings, OECD)

○ 공중보건 위험을 국가재난 리스크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공중보건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 시스템 구축 등 감염병 대응방식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 경제발전, 삶의 질의 결정 요소로서 공중보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속적인 연구 필요(Brookings) KIEP